

# 법정에 선 하나님

류호준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 들어가는 말

구약성경 안에는 이른바 ‘지혜문헌’이라 불리는 부분이 있다. 잠언, 전도서, 욥기가 그런 문헌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 책은 지혜교향곡을 연주하는 삼중주와 같다. 서로 다른 음색을 내지만 셋이 합하여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혜문헌에 비견한다면, 잠언은 대낮, 전도서는 황혼녘, 욥기서는 한밤중(黑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잠언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 하라고 좀 더 자명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은 대낮처럼 분명하고 명확하다. 바른 생활, 의로운 생활, 착한 생활 교본처럼 보인다.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나 전도서의 경우는 좀 다르다. 황혼이 깃들면 모든 것이 분명치 않게 된다. 황혼은 밝은 대낮이기에는 어둑해지는 순간이며, 어두운 밤이 되기에는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밝는 ‘회색의 시간대’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애매모호한 듯하다. 매우 염세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가는 전도서 기자의 논조는 마치 신기루처럼 그 뜻이

분명하면서도 불분명하다. 일종의 수사학적 모호성이라 할까?<sup>1</sup> 이에 비하면 욱기서는 독자들에게 흑야(黑夜)를 헤매는 느낌을 준다. 그 어느 곳에도 분명한 것은 없다. 아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독자로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다. 정말로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말이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삶의 '길' (777, 데레크)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길'은 대낮에서든지, 황혼녘이든지, 아니면 캄캄한 한밤중이든, 모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혜문헌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제2회 "구약과 목회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발표자들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은 "지혜서의 목회적 적용"이다. 목회 현장에서 지혜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 크리스천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시간이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의 강단은 구원역사와 관련이 된 구약본문들(토라와 전기 후기예언서)을 많이 사용하지만 창조신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지혜서들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첫째, 신자들의 삶의 대부분은 일상과 세상이라는 사실이다. 일상과 세상 속에 사는 신자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깨어지고 일그러진 세상(分堂, broken world)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삶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둘째, 교회가 신자들의 개인적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피난처로 축소 환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온 땅과 하늘과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라는 것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세상의

1 김순영, 『열셋말로 읽는 전도서』(한국구약학총서 20,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1).

들과 형편과 사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서에 대한 무지는 구속신학과 한 축을 이루는 창조신학에 대해 푸대접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다른 실제적인 악영향이 크리스천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지혜서 중에 욱기를 택하여 욱기가 신앙공동체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고 이해되어야 할까 하는 점을 다루려고 한다. 또한 설교자로서 나는 욱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탄식과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탄식행위가 구약에 추천하고 지지하는 “경건 전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문 자체도 암시하겠지만 욱기는 법정에서의 논쟁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친구들과 벌이는 논쟁 등은 욱기를 법정의 수사법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sup>2</sup>

## 욕기 구성

혹야로 대변될 수 있는 욱기는 크게 두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내러티브 섹션(narrative)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독백 시형(poetry)본문이다.<sup>3</sup> 내러티브 섹션인 서언(1-2장)과 종언(42:7-17)이 그 가운데를 구성하고 있는 본체(시)를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에게 내러티브의 전망에서 욱기를 읽을 것을 요구한다. 달리 말해 시로 되어 있는 논쟁과 담론과 독백으로 구성된 욱기의 중앙 부분(3:1-42:6)을 욱기의 내러티브적 서언과 종언의 틀 안에서 읽을 것을 요청한다는 말이다. 이 두 부분은 욱기 해석에 있어서 불가분의

2 월터 브루그만, 『구약신학: 증언, 논쟁, 옹호』 류호준, 류호영 공역 (서울: CLC, 2003), 623-34.

3 존 스탕, 『구약신학: 본문과 해석』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537-67.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점을 브레바드 차일즈는 욥기의 해석학적 열쇠라고 생각한다. 설명하자면, 욥기의 독자들은 서언부분을 통해(1-2장) 욥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갖게 된다. 욥기의 독자들은 이런 정보를 갖고 욥기를 읽기 시작한다. 어떤 정보인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다. 달리 말해 독자들은 왜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는지, 그리고 욥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내러티브 서언을 통해 안다. 그러나 욥기의 대화와 독백들(3장 이후) 안에 들어 있는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하는지 왜 하나님이 돌변하여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쓴다.

차일즈에 따르면 욥기는 한 세트의 구성된 두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하나는 욥기의 내러티브의 전망대에서 욥기 안에 기록된 대화와 독백을 바라보는 독자를 위한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욥의 입장에 서있으려는 독자를 위한 문제이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다툼과 내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무지한 채로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바라보든지, 이 두 가지 문제들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신앙공동체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sup>4</sup>

나는 내러티브의 끝인 2장과 시적 담론의 시작인 3장에서 각각 본문을 선택하여 그 신학적 질문들을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달리 말해 2장은 천상의 전망

4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534.

대에서 욥에게 닥칠 고난을 우리 독자에게 알려주는 반면, 3장의 욥은 2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며 그 무고한 고난당함에 대한 반응을 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말이다.

## “법정에 선 하나님”<sup>5</sup>

아래는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형태의 문예 신학적 에세이다. 이 문예 신학적 에세이를 통해 욥기가 신앙 공동체에게 제기하고 있는 신앙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한다.

먼저 두 본문이다. 욥기 2:1-10과 3:1-10이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웨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웨 앞에 서니 야웨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야웨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습니다.” 야웨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야웨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야웨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야웨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5 류호준, 『뒤돌아서서 바라본 하나님』(서울: 이레서원, 2006), 337-52.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 2:1-10)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다시금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낫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 수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하였었더라면,

리위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날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라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다. (욥 3:1-10)

## I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 라면 어떻게 했을까?

- 단 하루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 단 하루사이에 자녀 모두를 다 잃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 욥기 1장에서 보여주었던 욥처럼 행동하였을까?
  - 욥처럼,
    -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욥 1:21)
    - 라고 말하였을까?
  - 아니면, 욥기 3장에서 욥이 했던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 저주스런 날을 보내고 있었을까?
  - 욥처럼,
    - “내가 태어났던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날이 달력에서 없어져 영원히 기억되지 않은 날이었더라면“  
하고 탄식했을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 라면 어떻게 했을까?

- 욥기 1장과 2장의 욥과 자리를 같이 하였을까?
- 아니면 욥기 3장의 욥과 한 편이 되었을까?

자, 여기에 서로 ‘다른’ 두 명의 욥이 있다.

- 욥기 1장과 2장의 욥은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신학을 소유한 욥이다.
- 판에 박은 듯한 경건성을 지닌 모습의 욥이다.

욥은 전통적인 경건주의자로 시작하였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흠이 없고(“탐”) 정직하였으며(“야샤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경건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닌가? 경건이란 흠이 없고, 정직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악에서 떠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욥은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충고하자(2:9), 욥은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심정으로 대답하였다.<sup>6</sup>

그러나 욥기 3장의 욥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욥기 3장의 욥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러내어, “왜 이 세상을 잘 못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그치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욥, 경건했던 욥이 수많은 시련들과 유혹들을 당하자, 사방에 어려움과 환난들이 닥치자 그의 경건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는 거의 하나님과 그의 부모를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마치 예레미야가 그러하듯이 그랬다(렘 20:14-18).<sup>7</sup>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하여 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게다가 여기에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신학을 신봉하고 주장하는 그의 친구

6 류호준, “욥의 아내를 변호하다,” 『일상, 하나님 만나기』(서울: SFC, 2011), 380-87.

7 류호준, 『인간의 죄에 고뇌하시는 하나님』(서울: 이레서원, 2006), 131-43.

들이 있다. 이 친구들은, 자기의 이름을 쓸 줄 아는 정도의 나이를 먹은 사람이라면

-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 하나님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쳐왔다는 사실은 욥이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 사실을 아는데 무슨 대학졸업장까지 필요로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자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 당신들은 나의 열 명의 자녀들이 모두 나쁜 애들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 당신들은 이 모든 불행들이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나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인가?
- 내가 저지른 일이 당신들이 저지른 일들보다 무엇이 그렇게 악하고 나빠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소리친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어.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 나지는 않을 것이야 (13:4-5, 표준새번역)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13:4-5, 개역)

욥기 3장에서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에서 만난 욥과는 전혀 다른 욥을 만나

게 된다. 욥은 1장과 2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기 때문이다. 욥은 3장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차일즈가 앞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다는 말이다.]

욥기 3장의 욥은 그가 자라온, 교육받은 신학을 내던져 버린다.

-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자신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하나님께 항변한다.
-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격렬하게 항의한다.

한번 들어보자.

-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것에 따라 양육되어 왔던 신학을 내던진다면,
- 그리고 그러한 신학을 대치할 새로운 신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 우리는 블랙 홀(black hole)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 우리는 그곳에서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잡아줄 누군가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욥기 3장의 욥은 그의 유년시절의 신앙과, 지금 그가 몸담고 있는 신앙공동체의 신앙에 대항하는 '반항하는 욥'이다. 자신의 유년시절의 신앙을 던져버림으로써, 그러면서도 아직 새로운 신앙고백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욥은 절망에 빠졌다. 분명히 자기가 자라온 신학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학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옴은 죽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다. 그는 태양이 성냥불처럼 꺼지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태양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다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다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다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다시금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다라면,

## II

우리들 가운데도 자녀를 잃으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옴의 비극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 이 세상에서 자녀를 잃는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 이 세상에서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 이 세상에서 자녀를 잃어 입은 상처보다 더 느리게 치료되는 상처가 어디 있겠는가!
- 먼저 죽은 자식은 평생 가슴속에 파묻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녀가 결혼하여 얻은 어린 딸은 애석하게도 엄마의 태속에서 이미 장이 썩어 가는 병을 얻어, 태어날 때 아이는 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말이다. 그래서 젊은 엄마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어린 생명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장은 계속해서 썩어갔으며 더 이상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서 그냥 집으로 데려가라는 소리에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야만 했고, 어린 생명은 집으로 와서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지

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한 순간도 얼마가지 못했다. 퇴원한지 10여일 만에,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0여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야했기 때문이다. “승아” 라고 이름 지은 그 어린 딸을 하늘로 보낸 직후의 그 젊은 엄마의 가슴 찢어지는 고백이란……. 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 매일을 슬픔 속에서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부엌 싱크대 속 배출구가 무엇인가에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그것을 건져보니, 그것은 사랑하는 딸에게 겨우 며칠간 먹었던 분유 젓는 숟가락이었다. 젊은 엄마는 그것을 보고 부엌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아픔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아마도 평생을 가슴 저 밑바닥에 묻을 아픔일 것이다. 읊도 그랬을 것 같다.<sup>8</sup>

창세기의 요셉 -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 이 들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보고하는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 소식을 접한 야곱은 입었던 옷을 찢고 여러 날 동안 요셉을 위해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의 아들들과 딸이 그를 위로하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는 위로 받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그가 말한다. “내가 슬피 울며 지하의 세계(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겠노라”(창 37:35)고 말이다.

야곱은 한 아들을 잃었다. 그러나 읊은 열 자녀를 잃었다. 그것도 모두 한 날 한시에 잃었다.

- 읊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어디에 있겠는가?
- 읊이 절절하게 탄식하고 속절없이 원망한다고 읊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8 월터 브루그만, 『구약의 위대한 기도』 전이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2)

읍이 고난에서 회복되면서 처음처럼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얻게 된다(읍 42:7-16). 그러나 브루그만이 잘 지적하듯이, 읊의 기도(42:1-6)가 응답이 된 후에라도 그 사실이 “없음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렇더라도 읊은 큰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상상해 보라. 이들을 잃었다!”

왜 태어날 때 나는 죽어 나오지 않았는가?  
 왜 어머니의 태속에서 나오자마자 없어지지 않았는가?  
 왜 나는 낙태된 아기처럼 묻히지 않았단 말인가?  
 왜 나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은 갓난아이처럼 되지 않았던가?  
 왜 비참함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빛이 비추었던 말인가?  
 왜 쓰라림 가운데 있던 육체 위에 빛이 비추었던 말인가?  
 왜 죽기를 그렇게도 갈망하는 자에게 죽음은 주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말한다고 해서 말이다.

그러나 좌우간 욥은 살려는 의지를 유지하게 된다. 비참한 불길을 끝 방도를 찾아 부르짖기는 하였지만, 그는 결코 자살에 이르는 실질적 행보를 취하지는 않았다.

욥은 살려는 의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정에 하나님을 세우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욥 23:3-4).

검찰관처럼,

- 나는 그분을 세워놓고 반대신문을 하겠다.
- 조목조목 따져 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겠다.
- 내가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도전하겠다.
- 나는 그분에게 그분의 부성적(父性的) 자애로운 성격과 그분이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보라고 다그칠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정말로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처럼 들리는가?

-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생각.
- 하나님을 심문하겠다는 생각.
- 이러한 엄청난 문제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겠다는 생각.

### III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전통이다. 아니 성경의 전통 중의 일부분이다. 나치 대학살의 생존자인 엘리 위젤(Elie Wiesel)이 한번은 *The Trial of God* [법정에 선 하나님]이라는 각본을 쓴 적이 있다.<sup>9</sup> 이 극은 1649년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 샴고로드(Shamgorod)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다.

이 극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강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베리쉬(Berish)라는 여관 주인 가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관 주인 베리쉬에게는 한나(Hanna)라고 이름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다. 그 마을의 모든 유대인들이 코사크(cossack) 족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베

---

9 Elie Wiesel, *The Trial of God* (As it was held on February 25, 1649 in Shamgorod): *A Play* (New York: Random House, 1979).

리쉬와 그의 딸 한나만 살아남았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행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딸 한나는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고, 아버지 베리쉬는 그 광경을 무기력하게 쳐다보아야만 했으니까.

이제 베리쉬는 분노로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의 분노는 그의 동네 사람들을 살해한 코사크 족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종 학살을 허락한 하나님을 향해 불타올랐다.

그때, 세 명의 방랑극단 단원들이 베리쉬의 여인숙에 오게 된다. 그들이 이 동네에 온 것은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 부림절(Purim) 연극공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들은 마을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베리쉬가 그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말을 다 마친 후 베리쉬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왔습니다. 온 김에 좀 더 진지한 연극을 무대에 올려보지 않겠습니까? 제목은 ”재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재판하는 연극 말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간 마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그러자 그 단원들은 베리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재판장 역할은 그들이 맡고 베리쉬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베리쉬가 말한다. “연극을 함에 있어서 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내가 극중의 검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왜 그가 살해자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왜 희생자들에게는 수치와 눈물 밖의 그 무엇도 주지 않았는가를 직접 따져 물어 볼 것입니다.”

떠돌이 연극단원들은 [재판]이란 극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논고할 검찰관은 있는데 피고를 변호해줄 변호인이 없었다. 그때 한 연극 단원이 나서며 질문 아닌 질문을 한다. “이 우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맡을 변호인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그때 한 낯선 사람이 다가오더니 말한다. “내가 하겠소. 내가 하나님을 변호 하겠소이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전에 그를 어디선가 본 일이 있다고 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인상이 과히 편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도 그들 중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방인은 자신의 정체 알리기를 거절한다. 그가 자신에 관해 알린 것은 그의 이름이 샘(Sam)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샘(Sam)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말솜씨를 갖고 있었다. 만일 사건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면, 샘이야말로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샘은 매우 현란하고 탁월한 변호인이었다. 베리쉬가 제기한 모든 논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탁월한 변론 솜씨를 보였다.

샘이 법정에서 서서 말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과 의지는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이며 독립적입니

다.” 이것이 그의 변론의 요지였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참조, 사 55:9)

샘은 계속해서 열변을 토한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견디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고소하는 역할을 맡은 베리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의 논지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한다.

아니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가져가시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바란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우리 모두를 죽이란 말이오! 나는 이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외치고 또 외칠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의 마지막 한 줌을 사용해서라도 나의 항변을 온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숨을 다 바쳐 나는 나의 항의를 하나님께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베리쉬와는 전혀 달리, 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할 것을 말한다. 샘이 법정에서 서서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정(法廷)은 엄숙하고 조용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는다. 그러나 법정은 샘이란 사람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성자(聖者)인가? 그는 예언

자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란 말인가?

연극이 진행되면서 샘(Sam)의 정체가 밝혀진다. 샘은 사탄이었다. 샘이 사탄이라니!

#### IV

여기서 우리는 엘리 위젤(Elie Wiesel)이 이 극본을 통하여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

위젤이 하고자 하는 바는,

- 우리를 욥의 세계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세계로 우리를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 그 친구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언젠가 모든 일들이 정상적이 될 거야!”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겪어야만 했던 모든 고난들이 왜 필요했던가를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닌가?
- 바로 위젤은 그러한 욥의 친구들의 세계로 우리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젤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악’(惡)이라 불리는 실질적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모든 인간적 노력들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 악마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들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만과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 어떤 논조도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어떤 논리도 한 어린아이의 죽음도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어린아이의 죽음을 설명하는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삶은 한 쪽에서 바라보면 모순적이다.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순적인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세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순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이 말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는 뜻이다.

-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로 남아 계신다.
-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찾아질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선입(先入)된 사고를 산산조각 낸다.
-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야,” 혹은

“일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야” 라고 예견하려는 우리의 사고구조를 철저하게 부서뜨린다.

여기에 신앙을 위한 유일한 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에게 도저히 찾아질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모순(矛盾)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확신을 심어주시기 때문이다.

신앙은 우리에게,

- 좋을 때나 나쁠 때나

-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 살아있을 때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시어

우리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인생의 모순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건에 대한 성경의 전통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대상은 전통적인 경건주의자들인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욥이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옳지) 못함이니라.”(42:7)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욥을 칭찬하시고 그의 친구들은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욥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으셨을까? 무엇이 욥의 말의 정당함인가? 욥의 어떤 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았던 말인가? 42:6에서 욥의 회개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다른 친구들보다 옳다(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욥기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신정론에 대해 ”설명하려드는 정통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욥의 강력한 저항의 언어들“이었다고 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욥의 대담하고 담대하고 거칠 것이 없는 기도와 솔직한 탄식이 친구들의 그럴듯한 변신론(辯神論)적 응답보다 훨씬 낫고 옳다고 판결하신 것이다. 욥의 경건은 구약의 경건 전통 안에 서있었다. 월터 브루그만은 욥의 말의 정당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야웨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따르면 욥(이스라엘과 온 인류)은 야웨의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그리고 타협함이 없이 적법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천명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sup>10</sup>

구약의 경건의 현저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적나라하며 정직한 것”이다. 구약의 경건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행동들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대답들에 반박하고, 그분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되던져 하나님을 극한점(極限點)까지 몰아세운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아니 여기에 ‘진실’이 있다. 기억하자. 하나님과 싸움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성경적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면서 중보(仲保)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까지 가면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야곱은 어땠는가? 그 또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싸웠다. “내게 축복하실 때까지 당신을 결코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살았다. 그는 하나님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다툼들과 언쟁들을 벌인 구약의 성도들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그렇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내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가면서 다투었던 그들의 주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

10 월터 브루그만, 『구약신학: 증언, 논쟁, 옹호』 류호준 류호영 공역 (서울: CLC, 2003), 632.

〈Abstract〉

## God on Trial

Ho-Joon Ryou

This paper was originally presented as a public lecture for pastors on the occasion of “Old Testament Conference on Wisdom Books,” held at Woori Presbyterian Church, Bundang. The conference was designed to help busy pastors broaden their perspective on the Wisdom Books in view of daily struggle on the part of every believers’ life of faith. Because the biblical wisdom seeks to discern the right way, it also presents a lot of challenge to every struggling christians who try to make a balance on their walking on the right track. Among biblical wisdom books, the book of Job is always demanding, not only because of it’s complexity of contents, but also it presents a pressing hard question, “Why?”, so called theodicy.

The book of Job is composed of two different literary genre, narrative section and poetic one. Between an opening narrative (chap. 1-2) and a closing narrative (44:7-17) lies a long poetic section embedded. Background of opening narrative section is heavenly realm while poetic section where the figure of Job is lamenting for his bitterness describes the calamity of Job and his disputation with his otherwise good friends. Although the destiny of Job is revealed in opening narrative section(esp. Chap. 2), Job himself does not know his own destiny in poetic section(Chap. 3). From this discrepancy between Chap. 2 and Chap. 3, this paper takes off it’s purpose. Job’s devotion is on stake because of all of sudden calamity. He is very bold to charge God for his misfortunes. He tries to put God on trial. This paper in the end shows that bitter argument with God is a long biblical tradition and encourages believers to present their cases before God.

Key word: 욕, 탄식, 경건전통, 천상의 어전회의, 엘리 위젤